



-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. 비전이 없다. 목사청빙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. 비전스터디를 제안하자. 교회내에 그룹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자. 비전은 나중에 정할 수도 있다. 교인들의 비전 의견은 그룹에 맡기자.
- 큰 청빙(그림) 스케줄을 정하자. 그렇지만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.
- 비전스터디를 통해 비전을 먼저 정하자.
- 훈련등은 도구에 불과하다. 방법론은 새로 오실 목회자에 맡기자.